

John Bunyan's famous book, "The Pilgrim's Progress", tells the story of Christian's journey to the Celestial City. Early in his travels, Christian comes to the house of Interpreter, who shows him a portrait: "Christian saw the Picture of a very grave Person hung up against the wall; and this was the fashion of it. It had eyes lifted up to Heaven, the best of Books in his hand, the Law of Truth was written upon his lips, the World was behind his back. It stood as if it pleaded with men, and a Crown of Gold did hang over his head." Christian asks the obvious question: Who is this man, and what does his picture mean? What Christian saw at Interpreter's house was the portrait of a gospel minister. He was a man who helped sinners become the children of God, who kept a firm grip on God's Word, and who turned his back on everything the world had to offer. The apostle Paul wanted Timothy to become the same kind of minister, with "the World behind his back" and "the best of Books in his hand". In the closing verses of chapter 4 of 1 Timothy (vv. 11-16), Paul paints a portrait of the minister as a young man.

존 번연의 유명한 책 "천로 역정: 순례자의 전진"은 멸망의 도시에서 천상의 도시로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은 그의 여행 초기에 어떤 초상화를 보여주는 통역사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벽에 걸린 매우 엄숙한 사람의 그림을 보았는데 (이는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그의 손에 있던 최고의 책인 '진리의 법칙'은 그의 입술에 의해 쓰여졌고, 세상은 그의 등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왕관을 머리에 쓴 채 마치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그의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크리스천이 그 통역사의 집에서 본 것은 복음 성직자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이 주는 모든 조건에 등을 돌린 자 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세상을 등지고" "손에 최고의 책을 든"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 장 (11-16 절)의 마무리하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한 젊은 청년으로서의 목회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 1. An Exemplary Life 본보기가 되는 삶

The sketch for Paul's portrait comes at the beginning of verse 16: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Timothy must keep a careful eye on both his behaviour and his teaching. If he fails in either one he will fail in the ministry. Notice the order in which Paul lists life and doctrine: first life, then doctrine. Timothy cannot defend the Christian faith until he lives the Christian life. The famous Puritan Richard Baxter said, "There are too many men who are ministers before they know how to be Christians." Since Paul wanted Timothy to be a Christian first of all, he begins by telling his young protégé to lead an exemplary life: "Command and teach these things.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but set an example for the believers in speech, in life, in love, in faith and in purity" (vv. 11-12).

바울의 초상화의 밑그림은 16 절에서 시작됩니다: "네 행실과 가르침을 주의깊게 보라". 디모데는 그의 행동과 가르침 둘다에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합니다. 바울이 행실과 가르침을 말한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행실이 먼저이고 가르침이 다음에 옵니다. 디모데는 그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크리스천의 믿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의 대명사 리처드 백스터는 "그들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를 알기 전에 목회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가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의 어린 제자, 바울에게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11-12)

The Greek word translated "command" at the beginning of verse 11 means "to direct" or "to give orders". A teaching elder has true spiritual authority. It is his responsibility to teach - even to command, in God's name - his congregation to trust and obey the doctrine he has received from the apostles (the apostolic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Why did Paul need to remind Timothy of his God-given authority? Maybe because Timothy was timid? In his second letter to Timothy,

## The Portrait of a Gospel Minister 18th September, 2016

(1 Timothy 4:11-16; Nehemiah 8:1-8; Numbers 27:15-23)

Paul will write,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2 Timothy 1:7). Whether Timothy was timid or not, he was still a youngster, relatively speaking. Paul feared that Timothy's authority as a minister might be undermined by his tender years. So he said,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because you are young". Given the date when he first joined Paul (AD49-50) and the date of this letter (AD 62-64), Timothy may have been in his thirties at the time - one of the younger men as distinct from the older men (over 40). It was a relatively young age to bear full pastoral responsibility for an important church like Ephesus. Certainly it was not time to be immature or irresponsible. Timothy needed to be wise beyond his years.

11 절 도입부에서 번역된 "명하다"라는 그리스 단어는 "지시하다" 혹은 "명령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지닙니다. 이는 가르칠-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하에 명령할 책임을

말합니다 - 그의 성도들이 그가 사도들로 부터 받은 교리를 믿고 그에 순종하도록 말입니다 (신약에서의

사도들의 가르침).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어쩌면 디모데가 소심했던 탓일까요? 두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디모데가 겁이 많건

아니건, 그는 아직 비교적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의 권위가 그의 어린 나이로

인해서 훼손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가 처음 바울과 함께 했던 날짜 (기원후 49-50)와 그 편지가 쓰였던 날짜 (기원후 62-64)를 볼때,

디모데는 그 당시 30 대 - 나이든 남자들 (40 세 이상)과는 구별된 젊은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같은

중요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감당하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the Christians in Ephesus needed to respect Timothy's office. The command not to let anyone look down on him was intended for their ears as well as his own. Paul wanted to make sure that no one discriminated against Timothy on the basis of his age. But how can a young minister gain the respect of his elders - those older members of his congregation? Obviously not by demanding it, or by throwing his weight around, but only by setting a godly example. Timothy needed to be the very model of a godly Christian. People would not despise his youth if they could admire his example, especially "in speech, in life, in love, in faith and in purity".

그 당시의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은 디모데의 직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를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디모데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귀를 의식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나이를 두고 아무에게도

차별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 목회자가 장로들 - 교회의 더 나이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것을 그저 요구하거나 혹은 무게를 잡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좋은 본보기를 행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룩한 크리스천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

필요했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의 본이됨 - 특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감탄한다면 그의

어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Start with the minister's conversation. His speech is to be seasoned with grace. He should speak naturally and clearly about spiritual things. He is to tell the truth and not be argumentative. He must not be a gossip. Even his words of rebuke are to be covered with affection, like the medicine delivered with a spoonful of honey. He truly knows how to speak the truth in love. Such godly speech is one part of a godly life. Conduct and speech go together. What a minister's life ought to say is that he is God's man all the time: at home, at church, in the car, on the sporting field, at the supermarket...everywhere. The minister also sets an example in love. He is to keep both of the great commandments (Matthew 22:37-40). He is to have a passionate concern for the lost. He is to have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for the people God has placed under his spiritual care. He shares in their joys and sorrows. He cares most for those who are most difficult to love and care for.

목회자의 대화로부터 시작합시다. 그의 말은 은혜가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논쟁을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험담을

## The Portrait of a Gospel Minister 18th September, 2016

(1 Timothy 4:11-16; Nehemiah 8:1-8; Numbers 27:15-23)

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짖는 말 또한 꿀 한 스푼을 곁들인 약처럼 애정으로 감싸져 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말은 거룩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행동과 말은 함께 갑니다. 어떤 목사의 삶이 말해져야 하는 것은 그가 언제나: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차에서건, 스포츠 구장에서건, 슈퍼마켓에서건...어디서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또한 사랑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위대한 두가지 계명 (마태복음 22-37-40) 둘다 지켜야 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한 열정어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돌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의 마음속 특별한 곳에 품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는 정말 사랑하거나 돌보기 힘든 사람들을 가장 신경써 돌보아야 합니다.

With tender love goes strong faith. A minister should have complete confidence in his Lord and God. He seeks wisdom from above for the uncertainties of the future. He lives, studies, teaches and preaches by faith. And he is faithful, in that he is trustworthy and dependable in all his relationships and responsibilities. Last, but not least, the minister sets an example by his purity. Although the Greek word used for "purity" can describe general moral conduct, the Greeks more often used it to refer to sexual behaviour. An exhortation to sexual purity seems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a young man like Timothy. In his second letter, Paul exhorts Timothy to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2:22). How important it is for God's people to pray for the purity of their ministers. Young men preparing for pastoral ministry must work at applying the gospel of faith and repentance to any areas of sexual sin, and to practice godly discipline in what they look at, at what they think about, what they say, and what they touch. In short, a minister or pastor must set an example in every way. If he does, then his people will know how to live the Christian life.

부드러운 사랑과 강한 믿음은 함께 합니다. 목회자는 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위로 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그의 모든 교제와 말은 임무에 믿음만하고 의지할만한, 믿음으로 충만된 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최소한의 것이 아닌 것으로, 목회자는 정결함에 의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함"이라 사용된 그리스 단어는 일반적인 도덕적 행실을 의미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성과 관련된 행동을 언급할때 더 자주 사용합니다. 성적 정결에 대한 충고는 특히 디모데 같은 젊은 청년에게 적절한것 같습니다. 그의 두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2:22)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목회자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은 어떤 범주의 성적 죄에 대하여 회개와 복음으로 인한 믿음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들이 보는것, 그들이 생각하는것, 그들이 말하는것, 그리고 그들이 만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절제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직자나 목회자는 모든 범위에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러한다면, 그 다음 그의 성도들은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사는 방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One is reminded of the famous words of Robert Murray M'Cheyne: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These words are all the more appropriate when it is remembered that they were spoken by a minister who died when he was only thirty. M'Cheyne understood, as Paul wanted Timothy to understand, that even as a young man he was to excel in those qualities in which youth is prone to be deficient - seriousness, prudence, consideration for others, trustworthiness and mastery over the passions. As John Calvin said, sound biblical teaching "will be of little worth if there is not corresponding uprightness and holiness of life".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 성도들의 가장 큰 필요는 내 개인의 거룩함이다". 겨우 30 세에 세상을 떠난 목사에게서 나온 말 이라는 것을 기억해볼때, 이 말들은 더더욱 적절합니다. 맥체인은 심지어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덕목인 - 진지함, 신중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열정의 통제력 등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존 캘빈은 또한 확고한 성경적 가르침은, “따라오는 생활의 바름과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2. Biblical Doctrine 성경적 교리

Upon scanning this portrait of a young minister, Timothy may have been tempted to ask, as the psalmist did,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The psalmist’s response was,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Psalm 119:9). Paul gave Timothy the same answer: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v. 13). Until such time as Paul might return to Ephesus, Timothy must teach the biblical doctrine. And teaching the Bible begins with reading the Bible. This applies to private study, of course, but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reading refers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his held a central place in early Christian worship, being one of the practices the first Christians carried over from Jewish worship. By the time Paul was writing to Timothy, public readings included not only the scrolls of the Law, the Prophet and the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but also the letters of the apostles.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was necessary in the early church because books and parchments were scarce. For many Christians, public worship was the only opportunity to hear the Word of God. History shows that the work of the gospel flourishes whenever the Bible is read. This is why the disappearance of Scripture reading from many evangelical worship services both in Australia and South Korea is so alarming. It is crucial that the Word of God from the Old and New Testaments continues to be read in all the churches.

젊은 목회자의 초상화를 상세히 그려보면서, 디모데도 아마, 시편기자가 물었던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시편기자의 대답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9) 였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대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13 절).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오게 될 때 즈음, 디모데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 합니다. 이는 당연히 개인적인 공부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읽는것’ 이라는 그리스 단어는 성경의 공개적 낭독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예배 때 행해져 온 것을 초기 크리스천들이 실행하던 것 중 하나로 초대 교회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행해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공개적 낭독이란 율법의 쓰여진 구약의 예언서와 명시록 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들 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공개적 낭독은 책이나 문서등이 귀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 예배가 성경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사업은 성경이 읽혀질때마다 번성해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호주나 한국 두 곳 모두에서 많은 전도주의적 찬양예배 시의 말씀 낭독의 소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he Scripture is not only to be read, but it is also to be explained. Thus Paul commands Timothy also to devote himself to the preaching and teaching of the Word of God. The word translated “preaching” meant to encourage or to exhort, but it was widely used for sermonising. The letter to the Hebrews may be a good example of this kind of exhortatory preaching, since it speaks of itself as a “word of exhortation” (Hebrews 13:22). It is certainly full of pastoral exhortations. The second term translated “teaching” has more the idea of instruction. The Christian teacher is responsible for faithfully transmitting the inspired Word of God and catechizing God’s people in Christian doctrine. He is to explain the meaning of God’s Word and the applications it might have in new life situations. Paul tells Timothy to teach the Bible. This is because Bible exposition has always been at the heart of biblical worship, at least since the days of Ezra (Nehemiah 8:1-8). Timothy, and all Christian ministers everywhere, must follow the same pattern. First the Bible is to be read - then it is to be explained and applied. The systematic exposition of Scripture remains the most effectiv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sinners and the confirmation and maturing of God’s people. It is the most effective means because it is God’s chosen means. The central place of preaching and

(1 Timothy 4:11-16; Nehemiah 8:1-8; Numbers 27:15-23)

teaching the Bible in the life and work of the church is a crucial factor when it comes to calling a new minister.

성경은 단지 읽혀지지 않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헌신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Preaching”이라는 단어는 격려하다 혹은 권면하다 라는 뜻을 의미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설교를 하다 로 사용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아마도 “권면의 말” (히브리서 13:22)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러한 권면하는 설교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목회적 권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번째로 “Teaching” 으로 해석된 단어는 지시를 위한 더 많은 의견을 내포합니다. 크리스천 선생님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달하고 기독교의 교리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세히, 문답식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말씀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새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칠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해설이 언제나, 적어도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8:1-8) 이래로는 성경적 예배의 심장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모든 곳의 모든 목회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읽어야 하고 – 그 다음 그것은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성경의 해석은 죄인들의 개종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성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사역중에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중심부는 새 목회자를 부를때가 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Teaching biblical doctrine is what Timothy had been ordained to do, and his ordination to gospel ministry is mentioned explicitly in v. 14: “Do not neglect your gift, which was given you through a prophetic message when the body of elders laid their hands on you.” Although it is not a sacrament, the laying on of hands is an outward sign of an inward gift for ministry. The practice itself goes back to the blessings of the Old Testament. For example, Moses laid his hands on Joshua and commissioned him as his successor to lead God’s people. It was natural, therefore, for the first Christians to commission missionaries and pastors through the laying on of hands. This is the way Paul and Barnabas were set apart for missionary service by the church in Antioch of Syria (Acts 13:3). In much the same way, Timothy was ordained for the gospel ministry at the hands of the Ephesian church elders or elders from a number of congregations gathered for the special occasion of Timothy’s setting apart - including the hands of Paul himself (2 Timothy 1:6). One special feature of Timothy’s ordination was prophecy. At the time of his being set apart for his ministry, a prophetically inspired utterance was given about him in confirmation of his calling by God to the work. Perhaps it was a prophecy about what would happen through his ministry. In any case, Timothy was called to the ministry by the Holy Spirit. A true minister is called by the Holy Spirit, working through the desires of his heart and the wisdom of the church. This spiritual call is essential for enduring the hardships of ministry.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가 그렇게 하도록 임명받았던 것이고 그의 복음의 사역으로의 임명은 14 절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라” (14 절). 비록 그것이 성례식은 아니지만 손을 얹어 안수받는 것은 사역을 위한 내적 은사의 외적 표시입니다. 그 의례는 구약의 축복의 의식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 한 예는 모세가 조수아에게 손을 얹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계승자로 임명했던 것인데요, 그런다음 그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나 목사를 임명할때 손을 얹어 안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에 있는 안티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를 떠날때 했던 식입니다. 거의 같은 식으로 디모데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디모데를 파견하는 특별한 경우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 바울 그 자신의 손을 포함한 (디모데후서 1:6)-의 손으로 안수 받았었습니다. 디모데의 안수식의 한가지 특별한 것은 예언입니다. 그가 목사로 파견되어 안수 받을시에,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그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그에 관한 예언적 영감을 받은 발언이 주어진 것인데요, 아마도 이는 그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었던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디모데는 성령에 의해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란 그의 마음 속의 갈망과

## The Portrait of a Gospel Minister 18th September, 2016

(1 Timothy 4:11-16; Nehemiah 8:1-8; Numbers 27:15-23)

교회의 지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영적 부르심은 사역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Paul continues to motivate Timothy by telling him, "Do not neglect your gift". This is presumably the gift of leadership in teaching. Timothy is in danger of neglecting to develop and use his gift through timidity, or undue deference to those who were older or more experienced than him. The leadership gifts of the Spirit must be continually stirred up by a deliberate effort on the part of those who have received them. Only through constant use will they develop fully and be effective. What about you - are you using the gift or gifts that God has given you so that they develop fully and are effective?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말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의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이는 추정컨데, 가르치는데 있어 지도자적 은사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나친 배려로 인하여 그의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시키는 것을 소홀히 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지도자적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일부분으로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만이 그것들은 완전히 발달되고 효과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은사나 혹은 은사들을 온전히 개발하여 효과적일수 있도록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 3. The Church's Salvation 교회의 구원

Timothy's continuance in the ministry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Paul closes his instructions by saying, "Be diligent in these matters; give yourself wholly to them, so that everyone may see your progress.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Persevere in them, because if you do, you will save both yourself and your hearers" (vv. 15-16). Timothy must persevere for the salvation of the church, not to mention his own salvation. Be diligent, make these matters - that is, all those pastoral instructions Paul has given to Timothy in vv. 6-16 about being a good minister of Jesus Christ - make them your business. When it comes to ministry, practice makes perfect. Paul calls on Timothy to be totally committed to the task before him. Nothing less would bring about the sorts of results that the Christian leader is committed to see. Pastoral ministry should be Timothy's life. And if Timothy makes that commitment, then he will make the kind of "progress" that everyone will be able to see. The mention of "progress" is always an encouragement to us, isn't it? If Timothy was like most young ministers, there would have been times when he wondered if he would ever become the minister God wanted him to become. There must have been occasions when he was disappointed with his preaching or discouraged about his evangelism. After all, the standard for pastoral ministry in Ephesus had been set by none other than the apostle Paul! A man does not become a minister all at once, however. There i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Even if Timothy was not yet the minister he would become, at least he could make visible progress in life and doctrine. What about you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Are you making progress - real and visible progress - in living the Christian life and understanding God's Word? Commitment in the Lord's service should and will always show, though it should never be showy. And persistent commitment in practice will produce personal growth and greater confidence in doing the Lord's work. As God's people see the spiritual progress of their young pastor they will be spurred on to persevere themselves and to gain in grace as well. Paul applied the same principle with the deacons in 3:13, didn't he, where their faithful and diligent diaconal work spurs others in the congregation to grow in their pastoral care of others.

디모데의 사역의 지속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5-16 절)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마칩니다. 디모데는 그 스스로의 구원은 말할것도 없고, 교회의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 -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바울이 6-16 절에서 디모데에게 준 목회자로서의 이 모든 가르침 -에 열심을 다하라. 그것들이 너의 의무가 되게 하라. 사역에 있어서 연습은 완벽을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앞에 주어진 임무에

완전히 전념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가 보고자 전심을 쏟아부은 결과는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적 사역은 디모데의 삶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모든 이들이 볼수 있는 “진전”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진전”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운을 북돋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디모데가 대부분의 젊은 목회자 같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가 되기를 원했던 목회자가 언젠가 정말 될수 있을지 궁금할 때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전도 사업에 낙심하거나 그의 설교에 실망할 경우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에베소의 목회적 사역의 기준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사도 바울에 의해 세우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번에 완벽한 목사가 될순 없고 언제나 발전시켜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도 그가 되고자 했던 목사는 아직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행실과 가르침에 있어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봉사에서의 전념은 비록 보란듯이 하는것은 아니지만, 보여질 것이고 언제나 보여져야 합니다. 실천을 위한 끈질긴 전념은 개인적 성장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젊은 목사의 영적 성장을 본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노력하고 은혜 받을수 있게 자극될 것입니다. 바울은 3:13 절에서 그들의 믿음과 부지런한 집사의 노력이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함으로 그 교회에 있는 다른사람들을 자극한다는 같은 원칙을 집사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Finally Paul wanted to be sure that Timothy's work was not in vain, as it would have been if he were to give up and quit before it was finished. Ministers who continue in God's grace have the assurance of their own salvation and the joy of leading others to Christ. Salvation - forgiveness of sins and a new life lived in the power of the indwelling Holy Spirit - comes only by faith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ut as Paul says to the church in Rome,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Romans 10:17). And the word of Christ, in turn, comes by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erefore, Christian ministers are crucial to God's plan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There is even a sense in which they can be said to "save" their hearers, not by their own merits, but by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The spiritual destiny of any church is tied up with the spiritual destiny of its minister - or ministers - and his or their faithful proclamation of the gospel. Sound preaching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and acknowledging its vital role in salvation does not detract in any way from the grace God gives in the gospel. God's glory is in no way diminished by his using the work and service of men in granting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s Calvin said, "This ministry is itself entirely God's work, for it is he who makes men good pastors and leads them by his Spirit and blesses their work so that it may not be in vain." Every minister, every pastor, pleads with his people, implores them,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for salvation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May God give each one of us the grace to respond to that call and wholly trust in Jesus' name for eternal life.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완수되기도 전에 그만두거나 포기해버린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계속 있는 목사님들은 그들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께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 죄의 용서와 성령이 거하시는 능력안에 사는 새로운 삶 - 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결국 복음이 설교될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목사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또 한가지를 뜻하는데, 이는 듣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하여 진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교회의 영적 운명은 그 교회의 목사님- 혹은 목사님들의 영적 운명과 묶여 있습니다. 탄탄한 가르침은 삶과 죽음의 차이점을 구분짓고, 구원 사업에의 그것의 중대한 역할의 인식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외에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에 인간의 업적이나 봉사가 개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The Portrait of a Gospel Minister 18th September, 2016

(1 Timothy 4:11-16; Nehemiah 8:1-8; Numbers 27:15-23)

식으로든 경감될수는 없습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사역은 그 자체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면 그가 곧 좋은 목회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성령으로 이끌고, 그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하는 일을 축복하기 때문이지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으로”(사도행전 4:12), 모든 목회자, 모든 목사님들은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그의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부름에 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